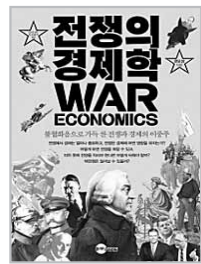


핵전쟁 일어날까... 오늘도 계산기는 돌아간다

전쟁의 경제학

권오상 지음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 감돌았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자극했다. 전쟁 발발을 가정한 군사력, 전략, 전술 등이 보도되면서 과연 '시나리오' 대로 전개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경제력이다. 전쟁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요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전쟁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니발과 나폴레옹이다.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한니발과 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군사적 천재'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만 군인이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프로이센군과 치른 최후의 전투 워털루 전투 한 장면. 이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돼 여기서 세상을 마쳤다. <플래닛미디어 제공>

이겨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역으로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전쟁은 승리한 경우가 있었다. 확연한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었다.

40년 넘게 군사와 경제 분야에 집중해 온 권오상 박사가 '전쟁의 경제학'을 펴냈다. 책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쟁분석서이자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전쟁과 경제의 이중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경제학은 전쟁의 제반 사항, 즉 원인이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경제적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익과 장려책, 그리고 선택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상통된다.

예일대의 폴 케네디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힘을 얻었고, 한편 그 힘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

면서 결국은 자신의 부를 소진시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A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B를 공격 할까요?" "2배 많은 적군을 상대로 부대 C가 현재 위치를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전쟁의 본질적인 특성인 불확실성으로 표현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적군의 군사적 결정도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그로부터 결과의 기댓값을 구해 결정을 내기는 경제학적 '기대값 극대화' 방법은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

책에서 전개하는 저자의 이론은 경제학과 게임이론에서 나아가 군수와 보급, 병참을 아우른다. 실제 있었던 전쟁의 사례도 언급돼 있어 이해를 도운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다음과 같다. 2차대전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의 고백이다. 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루 앞두고 미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천진난만한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플래닛미디어·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소멸세계=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남성이 전장으로 징용되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섹스를 통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프로그래밍에 원하는 조건을 넣으면 '매칭' 시켜주는 상대와 하며, 아이는 인공수정으로만 얻을 수 있다. 저자 무라타 사야카는 이번 작품에서 우리가 본능이라 믿어온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살림·1만3000원>

▲암흑의 시대: 약탈과 착취, 폭력과 학살의 시대=인도 사람의 입장에서 본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인도의 이야기이다. 사시 타루르(SHASHI THAROOR)는 현재 인도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책을 저술했다. 저자는 방대한 역사적 기록과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민지배 당시의 인도의 모습을 상세히 다루면서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도인을 대변하고 있다. <헬리펀다·2만원>

▲오늘의 GDP로 옛보는 10년 후, 한국=지구촌을 지배하는 'GDP의 경제학' '10년 후를 대비하게 하는 책'. 이 책은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사례를 담았다. 그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며, GDP 변화를 13개의 테마로 꼼꼼하게 되짚어 보여준다. 또, 자영업, 재테크, 트렌드, 교육, 여가 등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실적인 문제



와 부딪치는 상황에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준다. <스마트비즈니스·1만3400원>

▲이기심의 미덕=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이기심이다. 이기심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금기시하고 있다. 인류 역사 내내 내려오는 이타주의 윤리가 이기심의 일상적 의미까지 거꾸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기심이 악(惡)과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도덕 분야에서 혼란을 겪기에 이르렀다. 객관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아인 랜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지키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 목표라고 말한다.

<부글북스·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위기탈출 조선 119=2017년 119 안전체험관을 찾은 4명의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500여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백성의 안전을 소중히 여겼던 조상의 위기 대처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농업이 나라의 기간산업이었던 조선 백성의 생활은 천재지변과 싸우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재지변 중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긴 화재, 가뭄과 홍수, 맹수, 전염병 극복 과정을 정치, 법, 문화, 생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역사의 새로운 단면과 재난에 대처하는 조상의 지혜와 극복 의지를 배워본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

▲수박이 먹고 싶으면=우리가 쉽게 사 먹는 수박을 얻기 위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나아가 그것을 제대로 얻기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농부처럼 수박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맑은 역활이 수박농사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맞춰 수박을 길러야 하고, 그 역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땀 흘리고 마음 쏟으며 정성껏 일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준다.

▲이야기꽃·1만6500원>
▲우당탕탕 자동차 여행 = '메시와 미스테리를 따라 북유럽 핀란드로 우당탕탕 모험 가득한 자동차 여행을 떠나요!' 메시네 가족은 집을 꾸러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다. 메시의 친구 미스테리도 함께하기로 했다. 메시네 가족은 여행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과 친구가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잔뜩 사귀는 메시네 가족과 미스테리는 여행을 계속하는데... 과연 무사히 자동차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씨드북·1만2000원>

같은 듯 다른 한·중·일 음식 문화사

중형무진 밥상견문록

윤덕노 지음



으로 먹지 구이로는 거의 먹지 않는다. 이런 속설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예쁜 외동딸을 둔 노인이 있었다. 마을 영주가 딸을 첩으로 달라하자 그는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그 증거로 죽은 딸을 화장한다며 딸 대신 물고기를 넣고 태운다. 그때 넣은 물고기가 바로 '전어'였다는 이야기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질색할 만하다.

중국에서는 문헌상 전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한국과 일본에서 전어를

많이 먹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생선이었던 듯하다.

음식과 요리는 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과 정서가 투영된 문화의 총체다. 같은 재료를 놓고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다른 요리법과 음식법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 출신으로, 음식 유래 이야기를 써온 윤덕노가 펴낸 '중형무진 밥상견문록'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은 한·중·일의 음식 문화사다.

30여개의 음식 이야기가 흥미롭다. 조선 임금도, 중국 성현도, 일본 대장군도 즐겨먹은 별미 '물에 만 밥'에 얽힌 이야기나 똑같은 누룽지 속에서 송송·누룽

지방·첸베이 등 다른 요리가 나온 까닭, 평범한 채소인 가지가 중국과 일본에 가면 대접이 달라지는 이유, 둥근 보름달이 뜨면 상에 오르는 송편·월병·초기미 당고, 각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달래준 소울푸드 냉면·소바·메밀국수 등 다양한 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버섯, 전복, 주먹밥, 미꾸라지, 고구마, 단무지와 찌지 등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

저자는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선시대 각종 문헌과 중국 고전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서 근거를 찾아 음식의 유래와 속설을 연구하고 있다.

'음식 잡학 사전', '하루 한 입 세계사', '전생사에서 건진 별미들' 등 다양한 음식 관련 서적을 펴냈다.

<깊은나무·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룠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웅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웅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웅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웅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본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깨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울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	---	--	---